

## 9강 목자와 양 (요 10)

### 오늘의 포인트

-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사를 통해서 이해함
- 교회에 속했다는 개념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해함
-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 속했다는 것의 축복을 이해함

### 목자와 양의 '비사'(10:6; 16:25,29)

- 비유(比喩)와 비사(比辭):
  - 비사는 비유를 포함하는 짧은 가르침이지만 비유보다는 큰 이야기
  - 단순한 비유로는 충분히 의미를 드러낼 수 없을 때 비사를 사용한다.
  - 비사는 비유와 은유를 포함하는데, 이 비사에는 “나는 양의 문(7,9)”, “나는 선한 목자(11,14)”라는 은유가 있다.
  - 비유는 자연스러운 설명이지만, 비사는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다. 가령, 아무리 선한 목자라도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지 않는다.
- 목자와 양의 비사는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양인 성도가 가지는 관계에 대한 가르침
- 신앙은 목자와 양, 그리스도와 성도가 가지는 관계로 설명됨

### 비사의 정황

(요 10:3~5)

3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자기 동네에서만 기르지 않고 며칠씩 떠나서 소위 '방초 동산'을 찾아 양들을 먹이고는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한다. 밤이 되면 들판에서 양들을 재우지 않고 인근에 공용으로 만들어진 양 우리를 찾아 양들을 거기에 넣는다. 우리는 다른 짐승들이 넘어들어갈 수 없도록 돌로 울타리를 높이 만들었고 안에서 잠글 수 있는 문이 하나 있다. 목자가 그 우리에게 양을 집어넣으면 양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안에서 문을 잠그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목자들이 각각 자기의 양들을 한 우리에게 집어넣는다. 이튿날 아침 목자가 오면 문지기는 양을 맡긴 목자인지 확인하고 안에서 문을 열어주면 목자는 소리를 내서 자기 양들을 불러서 나간다. 여러 목자의 양들이 섞여 있는데 문지기가 숫자를 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정확히 분별하여 따라간다.

###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배우는 특징들

####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는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니다.
-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은 순종하여 목자를 따른다.

## 양은 목자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 여기서는 공용 우리가 아닌 목자의 사유 우리를 의미.
- 김홍전, “특별히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과거로부터 흘러내려온 폐풍 중의 한 가지가 바로 문턱을 아주 낮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이 되면, 그 양의 우리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확증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 볼 시간도 없고, 물어 보는 일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지만, 그때에 그가 양으로서 목자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격, 그 전제조건이 구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 양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상의 위험

- 절도와 강도(1)  
(요 10: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 도적(10a)  
(요 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 삿꾼(12,13)  
(요 10:12~13) 삿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삿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 이리(12)—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목사(마 7:15)  
(요 10:12) 삿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 (마 7: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 문이 좁고 협착한 길(마 7:14)  
(마 7: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시 23:4)  
(시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 “나는 양의 문이다”(7,9)

- (요 10:7)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 (요 10: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 양의 문은 목자가 양과 가지는 관계가 생명을 주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 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양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감으로써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다.
-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온 양들은 다 우리 안에 있고 영원히 안전하도록 보호를 받는다.
- (요 10:28)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안의 양이 누리는 축복: 안전감과 평안함과 풍성함]

- (요 10:28)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 (요 10:10b)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1항)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서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힘써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롬 8:15~16)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با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있다 = 보편 교회에 속해 있다.]

지역교회에 속한 것이 곧 우리 안에 있다는 의미는 아님.

지역교회의 가르침이 목자의 음성과 같은지 다른지를 분별하는 것은 양의 책임.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오기 위한 두 가지 경고]

1. 기독교 복음의 정도(正道)를 진지하게 추구하라.—복음의 정도/핵심과 주변부를 구분하지 못하면 길을 잃는다. 도덕적 감화나 고매한 인격, 학문적 추구, 지적 호기심 만족, 기적이나 신비 체험, 사회 문제 해결 등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다.
2. 길을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우리를 찾아 돌아올 수 없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목자가 인도해 주셔야 우리로 돌아올 수 있다.

## 목자의 음성

(요 10:3) 양은 그의 음성을 들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 10:14)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요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 목자의 음성/부르심은 유효하고 내적인 부르심

## “나는 선한 목자라”(12,14)

(요 10: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 10:14)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요 10:15b)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 10:17a)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어떤 목자도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은 선한 목자로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십자가

## 목자의 음성은 분열을 초래한다.

(요 10:19)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마 10:34~36)

34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유대인의 요구]

(요 10:24)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주님의 폭탄 선언]

(요 10:26)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 10:28~30)

28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주님을 돌로 치려함]

(요 10:31~33)

31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

(요 10:39)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믿는 사람들이 있다, 표적을 보지 않고]

(요 10:40~42)

40 ◎다시 요단 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41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 오늘의 적용

- 기억하라: 성도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가?